

“한국GM 군산공장 문제 정치권이 나서서 해결을”

전북도·군산시·군산시의회 등 국회서 촉구

전기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스마트 해양무인 통합시스템 실증플랫폼 구축 등
정세균 의장에게 지역 산업 체질개선책 지원 요청

문동신 군산시장을 비롯한 전북도 군산시의회, 상공회의소, 노조 측은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전북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중앙정치권이 나서 초당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국회를 찾았다.

지난 23일 문동신 군산시장과 전북도 최정호 정무부지사, 군산시 의회 박정희 의장, 군산상공회의소 김동수 회장, GM노조 군산지회 이범로 자문위원이 정세균 국회의장을 찾아 한국GM군산공장 정상가동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 것.

문시장 일행은 정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 7월 군산조선소 가동중

단에 이은 GM 군산공장의 폐쇄결정으로 초토화가 된 군산지역의 경제상황 및 위기사항을 설명하고 국회차원의 초당적인 대책기구 설치와 해결방안 마련을 요청했으며, 기재부·산업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통하여 GM군산공장 정상화 및 전기차 볼트EV 등 신차량량 배정, 글로벌 GM 베리 앵글 사장 면담을 통한 군산공장 정상화를 요구해 줄 것과, 군산지역 산업구조 고도화 및 체질개선사업으로 ▲전기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예타면제, 3,000억원) ▲스마트 해양무인 통합시스템 실증플랫폼 구축(2,800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1,130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한국GM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여줬음에도 일방적 폐쇄결정에 대한 배신감, 모멸감으로 정신적 패닉 상태에 빠져있는 군산지역에 예산을 집중지원해 줄 것도 아울러 건의했다.

또한 30만 군산시민과 200만 전북도민은 현재까지 논의 과정에서 부평? 창원만 언급하고 군산공장 폐쇄를 전제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군산공장 정상가동만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진행 중인 GM실사가 끝나고 정부가 협상에 나설 시 반드시 군산공장 정상화를 전제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촉구했다.

한편 전북도와 군산시는 200만 전북도민의 염원이 담긴 ‘한국GM 군산공장 정상화 방안 마련 촉구 범도민 서명부’를 지난 9일 청와대, 국무총리실, 한국GM 본사를 방문하여 전달하였고, 15일에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5개 정당 대표를 면담하고 전달한 바 있다. /군산=김관근 기자



지난 23일 전주산업단지 내 옛 썬렉스 건물에 들어선 팔복예술공장에서 개관 기념 행사가 열리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정정숙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 황순우 팔복예술공장 총괄기획,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 지역 문화예술인, 인근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시민들의 예술놀이터, 전주산단에 ‘문 활짝’

전주산업단지 내 폐공장 부지가 예술인들의 창작공간이자 시민들을 위한 예술놀이터로 탈바꿈했다.

전주시와 (재)전주문화재단은 지난 23일 전주산업단지 내 옛 썬렉스 건물에 들어선 팔복예술공장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정정숙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 황순우 팔복예술공장 총괄기획자,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 지역 문화예술인, 인근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팔복예술공장 시설 개관 및 개관 특별전 기념행사를 가졌다.

팔복예술공장은 전주시가 지난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지원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 25억원을 포함한 총 50억원을 들여 조성, 카세트 테이프를 생산하다 문을 닫고 20여 년간 방치됐던 공장 부지는 전주 북부권 대표 문화공간으로 변신했다.

양 기관은 이 팔복예술공장을 ‘동시대 예술의 실험과 창작을 통해 예술공민, 예술공단을 만들고 나아가 시민이 즐거운 예술놀이터를 만든다’는 비전아래 전주의 새로운 문화 중심지이자 지역 예술가와 산

팔복예술공장 개관
5월 7일까지 특별전

단 내 기업, 인근 주민들이 참여하는 지역 공동체의 중심점으로 만들 여 갈 계획이다.

2개 단지로 조성된 예술공장은 크게 예술창작공간과 예술교육공간으로 구성, 예술창작공간에는 공모를 통해 선발된 국·내외 13팀의 예술가가 입주한 상태다. 1기 입주작가들에게는 창작공간과 창작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창작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또한 예술공장 1단지 1층에는 카페테리아 ‘씨니’와 아트샵이 문을 연다. ‘씨니’는 산업단지라는 주변 환경을 고려해 조성한 인더스트리얼 컨셉의 카페로 1970~90년대의 문화적 정서를 반영해 디스플레이를 하며 팔복동 기업 및 근로자와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된다.

특히 씨니의 경우 팔복동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민 바리스타를 채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와 함께 1단지와 2단지를 잇는

컨테이너 브릿지에는 ‘백인의 서재’와 ‘포토존’이 배치되었다. 백인의 서재에서는 예술가가 선정한 인생의 책을 만나볼 수 있으며 아날로그 흑백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포토존도 운영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가장 낙후된 팔복 공단에서 예술의 힘으로 팔복동 주민들과 노동자, 아이들 삶의 변화가 시작됐다”며 “이 팔복예술공장은 예술 창작과 교육을 통해 팔복동과 공단, 나아가 전주 전체를 문화특별시로 만들어가는 핵심 기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개관식을 시작으로 오는 5월 7일까지 45일간 ‘Transform : [] 전환하다’를 주제로 개관 특별전시를 진행한다. 총 4개 섹션으로 구성된 개관 특별전시는 Δremind(다시 생각하다-커뮤니티 2인) Δre-create(재창조하다-레지던시 10팀) Δre-discover(재발견하다-창작예술학교AA 11팀) Δre-generate(혁신하다-초대작가 3인) 등 총 26팀이 참여한다. 개관 특별전시에 대한 자세한 팔복예술공장 홈페이지(www.palbokart.kr)를 참고하거나 기획단에 전화(063-211-0288)로 문의하면 된다. /채규남 기자

“새만금사업지역, 체계적 개발 계기 마련”

정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서 ‘지정·운영’·‘추진·지원’ 이중 적용서 새특법 따라 개발관리 일원화 안건 의결

새만금사업지역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아울러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두우레저지단에 골프장을 비롯한 문화·휴양·레저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23일 제9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 산업통상자원부장관)를 열고 3개 안건을 심의·의결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2008년 5월 지정된 새만금경제자유구역이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새만금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이중 적용에서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개발관리를 일원화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새만금사업지역을 체계

적,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에 따라 민간 투자가 촉진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또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두우레저지단에 골프장, 한옥빌리지, 테마파크 등 다양한 문화·휴양·레저시설과 상업·관광위락시설 용지를 확대하는 개발계획 변경(안)도 심의·의결했다.

이밖에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과 7개 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는 2018년 경제자유구역 공동홍보 계획(안)을 확정했다. /뉴시스

매일 INDEX

2면 ·구축된 MB, 독방 생활 시작

5면 ·학교 졸업·졸업 날짜 빨라진다

6면 ·하림 ‘열망 브랜드’ 선정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

사람과도시의 품격서 전주